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유형과 분리개별화 Family System Types and The Separation-Individuation Procedures Recognized Middle School Students

명지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이희자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
최수경

Dept. of Children and Family Study Division of Human Ecology
Prof. : Lee, Hee ja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yong Ji University
Choi, Soo Ky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family system types and the separation-individuation procedures, which seriously affect the mental develop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research analysed the rate of separation-individuation in each family system types as wel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midrange family was 61.1% among the four family system types, recognized by the middle school students.
2. Most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were suffering from the separation-individuation procedures. And the most afflicted hardship was the dependency denial, which was followed by the reject expectancy and self-centeredness.
3. The girl students were more deeply affected by the family system types than boyhood. Therefore girl students were much more intimate with family and made very stagnant progress on the separation-individuation procedure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개인적으로 독립하고 성장하기 위한 시기로 부모에 대한 심리적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와 독립이 중심이 되는 가족관계를 갖는 시기로서, 청소년은 성장하여 집을 떠날 때까지 개인적 영역을 확립하고 가치체계와 도덕적 추론능력을 발달시켜 청소년기 동안 개별화(individuation)를 이루어야 한다.

Blos는 일차적 개별화(Mahler, 1968)에 대응하는 이차적 독립을 제안했는데, 아동기에는 일차적 개별화를 통해 부모와의 물리적 독립을 인식하고 부모를 심리적으로 내면화하여 초자아를 형성하지만, 청소년기 이후에 겪게 되는 이차적 개별화 과정에서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정서적 독립을 꾀하면서 초자아의 기능을 '이상적-자아'(理想的-自我)가 대신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유아처럼 양가감정(兩可感情)을 갖게 되며, 혼란을 겪는다. 이런 격동의 시기를 거침으로써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부모와 별개의 '내가 원하는 나' 즉, 완전한 하나의 개체로서의 나를 발견했을 때 두 번째의 분리개별화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과정에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들은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충돌하고 갈등을 초래한다.

가족생활주기의 다섯번째 단계(Duvall, 1957)인 중·고등학교 자녀를 갖는 가족단계에서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고, 부모들은 중년기로의 변화를 위한 준비에 몰두하는 시기적 특징을 가지며, 아동기의 가족과는 다른 역할 패턴과 규칙을 확립해야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적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아동기의 통제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는 부모들은 평형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가족체계는 혼돈을 초래(민준기, 1994)하여 역기능적인 가족체계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부모·가족간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율성과 독립성 및 개별화과정의 발달에 매

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가족체계의 관점에서는 청소년기의 분리개별화가 현재의 가족체계를 변화시키는 중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학자마다 다양한 가족체계 이론 중 Beavers와 Voeller의 Model은 System Model에서의 중심개념으로 체계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족유형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점에서 가족체계적 관점을 가족발달이론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가족의 역동성을 조망(박효원, 1993)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분리개별화라는 변화가 가족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체계 유형을 알아보고자 가족유형에 따라 가족체계기능과 가족구성원들의 정서적·행동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Beavers의 가족체계 이론에 입각하여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체계 유형과 분리개별화 과정 및 상호작용을 고찰함으로써 기능적인 가족체계를 형성하도록 도우며, 청소년을 이해하고 그들의 발달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청소년 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이 최근 들어 옛날보다 일찍 성숙해지는 특성과 청소년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가족체계에 따른 영향을 후기보다 더 많이 받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남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2. 연구문제

이상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1. 우리 나라 중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체계 유형은 어떠한가?
2. 현재 중학생이 지각하는 분리개별화는 어떠한가, 분리-개별화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의 영역은 무엇인가?
3. 가족체계 유형이 중학생의 분리개별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Beavers의 체계모형

체계이론에 기초하고 임상 연구와 경험연구를 통하여 연역적으로 가족 기능에 대한 체계모형을 개발시킨 Beavers(1983)는 가족체계의 역동성을 유능성(competence)과 상호작용양식(style)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족유능성은 가족의 기능수준에 따라 최상기능, 적절기능, 중간범위의 기능, 경계선적 기능, 심한 역기능 등 5가지 수준으로 분류하고 이를 연속선상에서 직선적인 관계로 설명하며 유능성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체계의 기능은 효율적이며 건강하다. 상호작용양식은 한 사람이 가족체계내에서 경험하는 개인의 자율감의 정도를 말하며(Beavers & Voeller, 1983) 가족의 상호작용양식을 Strelin과 Erikson이 제시한 구심성과 원심성,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구심성이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집착하는 정도와 유대를 말하며, 원심성이란 가족구성원들이 가족을 떠날 수 있는 용이성의 정도를 가리킨다.

Beavers(1976)는 유능성과 상호작용양식, 두 차원이 상호 조합을 이루는 유형론적 모형을 발전시켰고, 이는 개인의 성장과정속에서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미친 영향에 초점을 두면서 가족과 개인의 심리적, 행동적 기능에 중점을 두어 설정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과 특징으로 분류된다.

유능성 차원은 가족의 기능수준에 5가지 수준으로, 상호작용양식은 구심성과 원심성 그리고 구심성과 원심성의 혼합 등 3가지 수준으로 각각 구분된다. 이러한 2가지 차원과 8가지 수준의 체계적 특성은 서로 연결되어 모두 9가지의 가족유형으로 분류된다.

1. 최상가족(optimal family)
2. 적절가족(adequate family)
3. 중간범위의 구심성 가족(midrange centripetal family)
4. 중간범위의 혼합 가족(midrange mixed family)
5. 중간범위의 원심성 가족(midrange centrifugal family)

6. 경계선 구심성 가족(borderline centripetal family)
7. 경계선 원심성 가족(borderline centrifugal family)
8. 심한 역기능 구심성 가족(severely dysfunctional centripetal family)
9. 심한 역기능 원심성 가족(severely dysfunctional centrifugal family)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 9가지 가족체계 유형에 따라 분석하였으나, 분리개별화의 8가지 영역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에는 복잡하였다. 그래서 전귀연(1996)이 가족기능 및 역기능 정도에 따라 9가지 가족유형을 다시 크게 4가지 가족체계 유형으로 나누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 4가지 가족체계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건강한 가족(최상가족, 적절가족)
적절하게 기능하며 가족구성원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거의 겪지 않는다.
2. 중간범위 가족(중간범위의 구심성 가족, 중간범위의 혼합가족, 중간범위의 원심성 가족)
이 유형의 자녀는 가벼운 행동장애와 신경증적인 증세를 보인다.
3. 경계선상의 가족(경계선 구심성 가족, 경계선 원심성 가족)
가족내에서 안정되고 통제지향적인 상호작용을 확립하는데 중간범위의 가족들보다 효과적이지 못하다. 또한 가족구성원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의식이나 통찰이 거의 없으며 이 유형의 자녀는 불안정한 성격혼란을 겪거나 강박관념이나 식욕부진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4. 심하게 혼란스러운 가족(심한 역기능 구심성 가족, 심한 역기능 원심성 가족)
가족역량 차원에서 가장 낮다. 이 유형의 가족은 분명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눈에 띄게 부족한 특징을 가지며 가족구성원은 가끔 정신분열증이나 반사회적 성격을 나타낸다고 한다.

2. 분리개별화 이론 및 선행 연구 고찰

분리개별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생후 첫 3년간에 만 집중되어 왔었다(Sullivan과 Sullivan, 1980). 이에

대해 Blos(1979)는 유아기의 첫 번째의 분리개별화 과정과 구별하여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두 번째의 분리개별화의 과정을 연구하였다. 그는 유아기에 일어나는 분리개별화 과정에 대한 Mahler의 이론을 청소년 시기의 발달에 적용하여 청소년기를 두 번째의 분리개별화 시기로 규정하였다. Blos는 첫 번째의 분리개별화를 성취한 아동이 청소년기에 도달했을 때, 유아적인 대인 관계로부터 독립하려는 새로운 변화를 다시 시도하게 되며, 이제까지 정서적으로 의존하였던 부모로부터 탈피하여 자신의 독립을 주장한다고 한다. 이것은 한 사람의 성인으로 성숙하려는 준비이다.

Blos는 분리개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부모를 의존하게 되고 그들의 자아는 부모로부터 빌린 자아로서 남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멀어지려는 중학생들은 부모자신의 불안과 중학생을 잡아두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욕심이, 서로 겹치며 갈등을 겪는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이러한 격동의 시기를 거침으로써 하나의 객체로서의 나를 발견했을 때 두 번째의 분리개별화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이차적 개별화 과정이란, 사춘기의 시작과 더불어 가족성원을 향한 심리적 애착에서 벗어나 가족외의 개인들과의 애착을 형성해가는 과정, 즉 심리적 이유기를 말한다.(Blos, 1967)

지금까지 수행된 청소년기의 분리개별화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청소년기의 분리개별화와 자아정체감 형성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있다. 여기서는 분리개별화의 물리적 분리와 독립성, 자율성과의 관련성, 적응과의 관련성 등으로 상세히 연구되어 있다.

둘째로,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와 부모와의 유대감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 있다. 이는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와 애착은 반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Josselson(1988)은 개체화는 부모와의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일어난다고 지적하면서 부모에게 안정되게 애착되어 있는 중학생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더 잘 개체화되어지며 새로운 상황에 더 잘 적응한다고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분리개별화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심리적 분리, 즉 분리개별화가 안정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손상이 되면 자기도취적 증상(Lapsley & Rice, 1988)과 경계선 인격장애(Noam, 1988), 과식증(Bruch, 1985; Friedlander & Siegel, 1990) 및 자살관념(Wade, 1987)을 초래하게 된다고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3개 중학교를 선정하여 1학년과 2학년 남학생 250명과 여학생 200명으로, 예비조사는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남·여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1996년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남녀중학생 총 450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한 자료 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총 398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체계 유형과 분리개별화의 진행정도를 알기 위하여 제작된 Beavers의 가족체계유형(박효원 번안) 질문지와 Blos의 분리개별화 척도(김인경 번안)를 사용하였다.

1) 가족체계 유형

가족체계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Beavers, Hampson, Huglus(1990)가 만든 '자기보고식 가족평가척도(Self-Report Family Inventory: SFI)'를 박효원(1993)이 번안한 것을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SFI는 모두 36문항으로 건강/유능성, 갈등, 의사소통, 응집성, 리더쉽, 표현력의 6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졌으며 가족구성원들이 스스로 지각하고

<표 2> 유능성 수준별 범위

| | 최 상 | 적 절 | 중간범위 | 경계선 | 심한역기능 | 전 체 |
|--------------|----------------|------------------|------------------|------------------|-----------------|------------------|
| 범 위 (원점수) | 3미만 (19-28) | 3-5미만 (29-47) | 5-7미만 (48-66) | 7-9미만 (67-85) | 9-10 (86-95) | X=4.74 SD=1.2 |
| 사례수 | 22 | 219 | 141 | 16 | 0 | N=398 |

있는 가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중학생들이 직접 반응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방식으로 평가하였다.

유능성 차원은 건강/유능성 척도의 19문항의 응답점수에 대한 평균점수를 구하고 개인이 얻을 수 있는 평균점수의 범위는 1-5이며, 5가지 수준을 정하기 위한 분류점(cutting point)은 이 평균 점수에 2를 곱하여 얻은 점수를 이용한다.

상호작용양식은 응집성 척도의 5문항의 응답점수를 합한 점수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5-25이다. 그 중 구심성, 혼합, 원심성의 3가지 수준을 정하기 위한 분류점(cutting point)은 이 검사점수의 평균 점수를 이용한다.

본 연구자료에 의한 양차원의 가족체계 수준별 범위는 <표 1>와 <표 2>과 같다.

2) 중학생의 분리 개별화

중학생기의 분리개별화에 대한 연구는 초기의 방법론적인 결함으로 인해 연구결과를 타당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유용한 측정도구들의 개발로 인해 연구에 큰 진전이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도구로는 분리불안 검사(SAT/Separation Anxiety Test: Hansburg, 1972,1980)와 심리적 분리척도(PSI/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Hoffman, 1984), 그리고 청소년기 분리개별화 검사(SITA/Separation-Inventory Test of Adolescence: Levine,

Green, & Millon, 1986)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vin, Green와 Millon(1986)의 청소년용 분리개별화 척도(Seperation-Individuation test for Adolescence: SITA)를 사용했다.(장근영과 윤진, 1992) 이 검사는 5점 Likert 척도로서 5점은 '매우 그렇다.'에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로 높은 총점은 분리개별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낸다. 중학생기에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심리적 측면으로는 8가지 영역이 있다.

다음은 SITA를 구성하고 있는 8가지 하위변인들에 대한 내용이다.

- ① 함입불안(engulfment anxiety)은 부모의 과도한 통제와 보호로 인해 자신의 독립성과 개별적인 정체성에 위협을 받아 불안해진다는 내용이다.
- ② 자기도취(self-centeredness)로 자신의 능력과 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 도취감
- ③ 분리불안(separation anxiety)은 부모와 떨어져 스스로 사회생활 해가는 상황에 대한 불안
- ④ 건강한 독립(healthy separation)으로 분리개별화 과정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과 관련된다.
- ⑤ 거부 불안¹⁾(reject expectancy)은 친밀한 관계에서 거부당하지 않을까하는 방어적 불안을 나타내고 있다.
- ⑥ 의존부정(dependency denial)은 의존 욕구에 대한 회피와 관계된 내용
- ⑦ 공생관계(nurturance-symbiosis)로 강한 의존욕구를 소유하여 이런 욕구에 대한 만족과 기대에 따른 긍정적 느낌 등을 기술하고 있다.
- ⑧ 친구와 결속강화(peer engulfment)로 친구와 친밀한 관계가 강해진 정도를 나타낸다.

1) reject expectancy: 거부에 대한 기대로 본 연구에서는 거부불안으로 변안하였다.

<표 1> 상호작용양식 수준별 범위

| | 구심성 | 혼 합 | 원심성 | 전 체 |
|--------------|------------------|----------------------|------------------|------------------|
| 범 위 (원점수) | 1-24 (12.4이하) | 25-35 (12.5-17.5) | 36-5 (17.6이상) | X=2.55 SD=0.6 |
| 사례수 | 190 | 184 | 24 | N=398 |

본 척도의 타당도에 관한 연구는 Moilanahan와 Holmbeck(1992)를 비롯하여 적응과의 관련 연구가 다수 있고, 국내 연구는 중학생기 자아중심성과의 관계(장근영과 윤진, 1992), 중학생기 자아중심성과 관련된 변인연구(김인경, 1993)가 연구되었다. 장근영과 윤진(1992)은 내적 일치도(chronbach's alpha)는 .83이고 김인경(1993)은 .87이고 본 연구에서는 .79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빈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χ^2 검증과 연구문제와 관련된 분석방법으로 F검증을 하였고, 사후검증은 Duncan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문항 신뢰도를 위해 Cronbach' & alpha를 사용하였다.

IV. 결과 해석 및 논의

1. 중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체계 유형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Beavers(1990)의 9가지 가족체계유형 가운데 나타난 가족유형은 최상가족, 적절가족, 중간범위의 구심성 가족, 중간범위의 혼합가족, 중간범위의 원심성 가족, 경계선적 원심성 가족등으로, 한편 경계선적 구심성 가족, 심한 역

기능적 구심성 가족, 심한 역기능적 원심성 가족유형은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Beavers의 9가지 가족체계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3가지 새로운 유형이 나타났다. 본 연구자는 Beavers의 가족 유형분류 기준에 기초하여 이를 최상기능의 구심성 가족, 적절기능의 구심성 가족, 적절기능의 원심성 가족등으로 명명(命名)하였다. 이 가족유형들은 전체 응답자수에 대하여 각각 5.3%, 34.9%, 0.5%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 중 적절기능의 구심성 가족유형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 결속을 중요시하며 대부분이 사고(思考)와 행동에 있어서 가족단위로 생각하는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가족구조(송성자, 1978)에 비추어 볼 때, 한국적인 상황에서 독특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족유형의 하나로 한다는 박효원(1993)의 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외시키더라도 추후에 이 가족유형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건강/유능성 차원에서 가족체계 유형을 살펴보면, 적절가족이 219명으로 전체의 55.0%이고 중간범위 가족은 35.4%를 나타낸다.

상호작용양식에서는 혼합성(46.2%)과 구심성(47.7%) 차원은 비슷한 비율로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원심성은 6.0%에 지나지 않았다.

남·여학생의 차이는 건강/유능성 차원에서 경계선적 가족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낮게 나타났고, 최상가족, 원심성 가족, 구심성 가족도 모두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적어 남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족체계 유형이 중간범위거나 적절기능의 혼합차원의 가족

<표 3>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 유형

(N=398)

| | | 건강/유능성 차원 | | | | | |
|-----------|-----|-----------|-----------|-----------|-----------|---------|------------|
| | | 심한역기능 | 경계선 | 중간범위 | 적절 | 최상 | |
| 스타일 차원 | 원심성 | 사회병리 장애아 | 9(22) | 13(33) | | | |
| | | | 경계선 성격장애아 | 행동 장애아 | 2(0.5) | | 24(6.0) |
| | 혼합 | | 7(1.8) | 98(24.6) | 78(19.6) | 1(0.2) | 184(46.2) |
| | 구심성 | 정신분열증 장애아 | 강박증 장애아 | 30(7.5) | | | |
| | | | 16(4.0) | 141(35.4) | 219(55.0) | 22(5.5) | 398(100.0) |

〈표 4〉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유형

| 가족체계 유형 | | 빈도 | % |
|---------|------------|-----|------|
| 전체 | 1 건강한 가족 | 79 | 34.5 |
| | 2 중간범위 가족 | 141 | 61.6 |
| | 3 경계선상의 가족 | 9 | 3.9 |
| 남학생 | 1 건강한 가족 | 38 | 30.6 |
| | 2 중간범위 가족 | 84 | 67.7 |
| | 3 경계선상의 가족 | 2 | 1.6 |
| 여학생 | 1 건강한 가족 | 41 | 39.0 |
| | 2 중간범위 가족 | 57 | 54.3 |
| | 3 경계선상의 가족 | 7 | 6.7 |

〈표 5〉 중학생의 분리개별화 (N=398)

| 분리개별화 | | 평균 | 표준편차 |
|-------|----------|-----|------|
| 청소년 | 1 합입불안 | 3.5 | 0.7 |
| | 2 자기도취 | 3.6 | 0.6 |
| | 3 분리불안 | 3.2 | 0.6 |
| | 4 건강한 독립 | 2.7 | 0.5 |
| | 5 거부 불안 | 3.6 | 0.7 |
| | 6 의존부정 | 3.9 | 0.5 |
| | 7 공생관계 | 3.0 | 0.7 |
| | 8 친구와 결속 | 2.7 | 0.6 |
| | | 3.3 | 0.3 |

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Beavers의 가족체계 유형이 모두 6가지나 되므로 현재 우리나라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유형은 상세히 알 수 있으나 분리개별화와 함께 그 상관관계를 알기에는 복잡해서 이 9가지 가족유형은 가족기능 및 역기능 정도에 따라 크게 4가지 가족체계 유형(전귀연, 1996)으로 나누어진다. 이 4가지 가족체계 유형으로 나뉜 것은 〈표 4〉에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통적으로 충과 효를 강조하는 유교주의(儒敎主義) 사회에서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구심성 차원(190명 47.7%)이 원심성 차원(24명 6.0%)보다 훨씬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4〉에서 보듯이 중간범위의 가족과 적절 가족이 전체의 96.1%로 대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본조사에서 대상 학생이 이제 막 청소년 전기에 들어선 중학생이 대다수였다는 것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즉, 이들은 청소년 후기보다는 아직 아동기에 가까워서 가족과 밀착되어 있으므로 청소년기의 특징인 반항과 불만족의 부분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2. 중학생이 지각한 분리개별화

중학생이 지각한 분리개별화 과정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와 같다.

우선 전체적으로 총점 5에서 평균점수 3.3으로 전

반적인 분리개별화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분리개별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각 하위영역별로 보면 의존부정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부 불안과 자기도취, 합입불안, 분리불안, 공생관계, 건강한 독립, 친구와 결속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이는 친밀한 관계에서 거부당하지 않을까 하는 방어적 불안과 부모의 과도한 통제와 보호로 인해 자신의 독립성과 개별적인 정체성에 위협을 받아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3. 가족체계 유형별 분리개별화

1) 중학생의 가족체계 유형별 분리개별화

여기에서는 Beavers의 9가지 가족체계유형 중 중학생이 지각한 7체계와 또 앞서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분리개별화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표 6〉에서 보면 4가지 가족 체계 중 3가지만 나와 있는데, 이는 심한 역기능적 구심성 가족과 심한 역기능적 원심성 가족유형이 나타나지 않은 데 따른 결과이다.

우선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영역을 제시하면 합입불안, 자기도취, 거부 불안, 공생관계의 4영역이며 영역별로는 살펴보면 합입불안을 건강한 가족과 중간범위가족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이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역별로는 합입불안(F=3.76, p<.05)에서 건강한 가족, 중간가족, 경계선상의 가족순으로 건강한 가

〈표 6〉 가족체계 유형별 분리개별화

| 가족체계유형 | | 평 균 | 표준편차 | F | DUNCAN |
|-------------|----------------|-------|------|---------|--------|
| 1. 함입불안 | 1 건강한 가족(79) | 25.0 | 46 | 3.76* | A |
| | 2 중간범위 가족(141) | 23.6 | 45 | | A |
| | 3 경계선상의 가족(9) | 21.5 | 46 | | B |
| 2. 자기도취 | 1 건강한 가족(79) | 52.4 | 89 | 4.72** | B |
| | 2 중간범위 가족(141) | 55.8 | 9.3 | | B |
| | 3 경계선상의 가족(9) | 59.3 | 9.7 | | A |
| 3. 분리불안 | 1 건강한 가족(79) | 44.5 | 7.7 | 0.16 | |
| | 2 중간범위 가족(141) | 44.0 | 8.9 | | |
| | 3 경계선상의 가족(9) | 45.3 | 5.5 | | |
| 4. 건강한 독립 | 1 건강한 가족(79) | 18.2 | 3.6 | 1.45 | |
| | 2 중간범위 가족(141) | 18.9 | 3.8 | | |
| | 3 경계선상의 가족(9) | 20.1 | 5.1 | | |
| 5. 거부불안 | 1 건강한 가족(79) | 45.8 | 6.4 | 24.2*** | A |
| | 2 중간범위 가족(141) | 39.7 | 7.5 | | B |
| | 3 경계선상의 가족(9) | 33.2 | 9.8 | | C |
| 6. 의존부정 | 1 건강한 가족(79) | 47.7 | 5.9 | 2.70 | |
| | 2 중간범위 가족(141) | 45.9 | 6.7 | | |
| | 3 경계선상의 가족(9) | 44.1 | 5.5 | | |
| 7. 공생관계 | 1 건강한 가족(79) | 20.3 | 4.8 | 83.2*** | B |
| | 2 중간범위 가족(141) | 22.5 | 4.5 | | B |
| | 3 경계선상의 가족(9) | 25.4 | 6.6 | | A |
| 8. 친구와 결속강화 | 1 건강한 가족(79) | 15.8 | 4.1 | 2.21 | |
| | 2 중간범위 가족(141) | 16.9 | 3.6 | | |
| | 3 경계선상의 가족(9) | 17.2 | 4.6 | | |
| 전 체 | 1 건강한 가족(79) | 269.7 | 24.6 | 0.20 | |
| | 2 중간범위 가족(141) | 267.3 | 30.2 | | |
| | 3 경계선상의 가족(9) | 266.3 | 23.3 | | |

Duncan의 사후검증 *P < .05 **P < .01 ***P < .001

족일수록 함입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한 결과, 건강·중간범위의 가족과 경계선상의 가족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것은 건강한 가족에 있는 중학생이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기도취영역(F=4.72, p<.01)에서는 건강한 가족일수록 자기도취가 낮게 나타났으며, 집단간 차이는 건강·중간범위의 가족과 경계선상의 가족 순으로 자기도취 영역이 낮게 나타나, 경계선 가족에서 자기도취감의 자녀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박효원, 1993)

분리불안과 건강한 독립의 영역에서는 가족체계 유형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분리불안감이 평균 44.0점에서 45.3점이고, 건강한 독립은 평균 18.2에서 20.1점으로 차이를 보인 것은 전체적으로 분리개별화의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거부 불안(F=24.2, p<.001)에서는 건강한 가족일수록 거부 불안이 높다. 또한 Duncan의 사후검증 실시 결과 세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며, 건강한 가족과 경계선상의 가족간에도 큰 차이가 있다. 즉 건강한 가족일수록 친밀한 관계에서 거부당

하지 않을까 하는 방어적 불안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미 경계선상의 가족속에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 거리감을 두며 가족간 구성원 사이에 관심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기에 새롭게 거부불안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생관계 영역(F=83.2, p<.001)은 경계선상의 가족, 중간범위의 가족, 건강한 가족순으로 건강한 가족과 중간범위의 가족이 경계선상의 가족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여 경계선 가족일수록 공생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친구와 결속강화 영역은 분리개별화 과정 중 어

려움이 낮게 나타난 영역으로 가족체계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 남학생의 가족체계 유형별 분리개별화

남학생의 경우 <표 7>를 보면 가족체계 유형에 따른 분리개별화 과정 중 거부 불안(F=6.65, p<.01)과 공생관계(F=3.51, p<.05)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나머지 함입불안, 자기도취, 분리불안, 건강한 독립, 의존부정, 친구와 결속 영역에서는 가족체계 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거부 불안에 따른 가족체계 유형의 평균점수를

<표 7> 남학생의 가족체계유형별 분리개별화

| 가족체계유형 | | 평 균 | 표준편차 | F | DUNCAN |
|-------------|---------------|-------|------|--------|-------------|
| 1. 함입불안 | 1 건강한 가족(38) | 24.8 | 4.8 | 0.82 | |
| | 2 중간범위 가족(84) | 23.8 | 4.3 | | |
| | 3 경계선상의 가족(2) | 23.0 | 1.4 | | |
| 2. 자기도취 | 1 건강한 가족(38) | 53.2 | 8.2 | 0.82 | |
| | 2 중간범위 가족(84) | 55.2 | 9.6 | | |
| | 3 경계선상의 가족(2) | 50.5 | 19.1 | | |
| 3. 분리불안 | 1 건강한 가족(38) | 45.3 | 7.6 | 0.23 | |
| | 2 중간범위 가족(84) | 44.8 | 8.3 | | |
| | 3 경계선상의 가족(2) | 41.5 | 6.4 | | |
| 4. 건강한 독립 | 1 건강한 가족(38) | 18.4 | 3.7 | 0.62 | |
| | 2 중간범위 가족(84) | 19.0 | 3.9 | | |
| | 3 경계선상의 가족(2) | 17.0 | 2.8 | | |
| 5. 거부불안 | 1 건강한 가족(38) | 45.5 | 6.0 | 6.65** | A B B |
| | 2 중간범위 가족(84) | 40.8 | 7.1 | | |
| | 3 경계선상의 가족(2) | 35.0 | 15.6 | | |
| 6. 의존부정 | 1 건강한 가족(38) | 46.0 | 6.3 | 0.37 | |
| | 2 중간범위 가족(84) | 45.1 | 6.6 | | |
| | 3 경계선상의 가족(2) | 43.0 | 7.1 | | |
| 7. 공생관계 | 1 건강한 가족(38) | 20.1 | 5.2 | 3.51* | A A A |
| | 2 중간범위 가족(84) | 22.5 | 4.6 | | |
| | 3 경계선상의 가족(2) | 20.5 | 4.9 | | |
| 8. 친구와 결속강화 | 1 건강한 가족(38) | 16.3 | 4.0 | 1.25 | |
| | 2 중간범위 가족(84) | 17.1 | 3.9 | | |
| | 3 경계선상의 가족(2) | 13.5 | 2.1 | | |
| 전 체 | 1 건강한 가족(38) | 269.6 | 24.4 | 0.80 | |
| | 2 중간범위 가족(84) | 268.4 | 29.3 | | |
| | 3 경계선상의 가족(2) | 244.0 | 15.6 | | |

Duncan의 사후검증 *P<.05 **P<.01 ***P<.001

비교해 보면 건강한 가족, 중간범위의 가족, 경계선상의 가족순으로 나타나 경계선상의 가족일수록 친밀한 관계에서 거부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낮게 나타난다. 이것은 경계선 가족은 가족간의 분리가 나타나지 않는 가족이기 때문이다.

3) 여학생의 가족체계 유형별 분리개별화

여학생의 가족체계 유형에 따른 분리개별화의 차이를 검증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우선, 남학생은 거부 불안과 공생관계, 이 두 영역에서만 가족체계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2개

영역이외에 함입불안, 자기도취, 의존부정, 친구와 결속강화 등 6개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족체계 유형이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분리개별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수 있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함입불안($F=3.02, p<.05$)은 건강한 가족, 중간범위의 가족, 경계선상의 가족순으로 건강한 가족일수록 부모의 과도한 통제와 보호로 인해 자신의 독립성과 개별적인 정체성에 위협을 받아 불안해 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기도취 영역($F=5.92, p<.01$)에서는 평균점수의 범위가 51.6-61.9점으로 분리개별화 8개 영역 중 제

<표 8> 여학생의 가족체계 유형별 분리개별화

| 가족체계유형 | | 평균 | 표준편차 | F | DUNCAN |
|-------------|---------------|-------|------|---------|--------|
| 1. 함입불안 | 1 건강한 가족(41) | 25.1 | 4.4 | 3.02* | A |
| | 2 중간범위 가족(57) | 23.4 | 4.8 | | B |
| | 3 경계선상의 가족(7) | 21.1 | 5.2 | | B |
| 2. 자기도취 | 1 건강한 가족(41) | 51.6 | 9.6 | 5.92** | B |
| | 2 중간범위 가족(57) | 56.6 | 8.9 | | B |
| | 3 경계선상의 가족(7) | 61.9 | 5.6 | | A |
| 3. 분리불안 | 1 건강한 가족(41) | 43.8 | 7.8 | 0.56 | |
| | 2 중간범위 가족(57) | 42.9 | 9.6 | | |
| | 3 경계선상의 가족(7) | 46.4 | 5.2 | | |
| 4. 건강한 독립 | 1 건강한 가족(41) | 18.0 | 3.5 | 1.84 | |
| | 2 중간범위 가족(57) | 18.6 | 3.8 | | |
| | 3 경계선상의 가족(7) | 21.0 | 5.4 | | |
| 5. 거부에 대한기대 | 1 건강한 가족(41) | 46.2 | 6.3 | 19.0*** | A |
| | 2 중간범위 가족(57) | 38.0 | 7.9 | | B |
| | 3 경계선상의 가족(7) | 32.7 | 9.3 | | C |
| 6. 의존부정 | 1 건강한 가족(41) | 49.3 | 5.1 | 2.80* | A |
| | 2 중간범위 가족(57) | 47.0 | 6.8 | | B |
| | 3 경계선상의 가족(7) | 44.4 | 5.6 | | B |
| 7. 공생관계 | 1 건강한 가족(41) | 20.6 | 4.4 | 6.28** | B |
| | 2 중간범위 가족(57) | 22.6 | 4.5 | | B |
| | 3 경계선상의 가족(7) | 26.9 | 6.6 | | A |
| 8. 친구와 결속강화 | 1 건강한 가족(41) | 15.3 | 4.2 | 2.55* | B |
| | 2 중간범위 가족(57) | 16.6 | 3.3 | | B |
| | 3 경계선상의 가족(7) | 18.3 | 4.7 | | A |
| 전 체 | 1 건강한 가족(41) | 269.9 | 25.1 | 0.36 | |
| | 2 중간범위 가족(57) | 265.7 | 31.7 | | |
| | 3 경계선상의 가족(7) | 272.7 | 21.7 | | |

Duncan의 사후검증 * $P<.05$ ** $P<.01$ *** $P<.001$

일 높고, 집단간의 점수 차이도 크다. 자기도취는 경계선 성격의 특징으로 경계선 가족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분리불안은 남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균점수는 42.9~43.8점으로 8개 영역에서 높은 편이나 가족체계 유형과는 차이가 없다. 이는 가족체계와 상관없이 남·여학생 모두 분리개별화의 불안감이 높은 영역으로 간주된다.

건강한 독립 역시 남학생의 경우처럼 평균점수는 18.0~21.0점으로 8개 영역에서는 낮은 점수이고, 가족체계 유형과는 차이가 없다.

거부 불안($F=19.0, p<.001$)는 유의한 차이도 크고, 세 집단간에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 즉, 건강한 가족일수록 친밀한 관계에서 거부당할까 하는 방어적 불안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중간범위의 가족, 경계선상의 가족순이다.

공생관계($F=6.28, p<.01$)에서는 경계선상의 가족일수록 더 강한 의존욕구를 소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친구와 결속 강화($F=2.55, p<.05$) 영역 역시 경계선상의 가족일수록 친구와 친밀한 관계가 강해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경계선상의 가족유형에서 상호작용양식의 구성요소 중 구심성 상호작용양식의 가족은 전혀 없고, 원심성과 혼합차원만으로 구성된 결과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도취 역시 구심성 차원의 가족이 없으니까 모두 밖에서 만족감을 얻는 구심성·혼합 유형의 가족이므로 중학생들은 가족외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만족감을 얻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과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가족내에서 인정받기보다는 가족외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합입불안, 거부 불안, 의존부정은 건강한 가족일수록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건강한 가족의 상호작용양식의 구성이 원심성 가족이 0.5%이고 혼합이 19.8%, 구심성이 40.2%로 구성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면 구심적이므로 가족원끼리 서로 집착하는 정도와 유대가 높다. 즉, 자녀의 의존욕구를 이용하는 정서적 유대가 높고, 부모의 관섭과 관여가 많으

며, 가족결속을 유지하도록 충·효를 강조한다.

따라서 건강한 가족일수록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보호에 따른 자신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위협 받는다는 합입불안이 높고 가족관계가 밀착되어 있으므로 그 친밀한 관계에서 거부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Beavers등이 가족체계유형 분류를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식 가족평가척도'와 Blos의 분리개별화 이론에 입각하여 중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체계유형과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겪는 불안감의 영역을 살펴보고,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 유형에 따라 분리개별화과정에 영향력이 있는 변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 유형은 중간범위의 가족(61.6%)과 건강한 가족(34.5%)이 전체의 96.1%를 차지하고, 상호작용양식에서 보면 구심성 가족과 혼합 가족이 비슷한 비율로 전체 학생의 대다수이며 원심성 가족의 비율은 적었다. 건강/유능성 차원에서는 적절가족이 전체의 절반정도이고 중간범위의 가족은 1/3정도이다.

둘째,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는 의존부정이 제일 높고, 다음으로는 거부 불안, 자기도취, 합입불안, 분리불안, 공생관계, 건강한 독립, 친구와 결속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에서의 불안감이 개인의 독자성 영역보다 더 크다는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가족체계 유형이 분리개별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 결과, 분리개별화 정도를 알아보는 8개 영역중 중학생 전체는 합입불안, 자기도취, 거부 불안, 공생관계의 4개 영역에서, 남학생의 경우는 거부 불안과 공생관계 영역에서 가족체계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합입불안, 자기도취, 거부 불안, 의존부정, 공생

관계, 친구와 결속강화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가족체계 유형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은 여학생이 가족과 좀 더 밀착되어 있고 분리개별화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중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체계 유형은 중간범위가족이고 이 유형의 중학생들은 대체로 가벼운 행동장애와 신경증적인 증세를 보인다. 분리개별화에는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가족체계가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가족관계가 좀 더 밀착되어 있는 관계를 뜻한다. 따라서 밀착에 따른 거부와 의존부정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제한된 일부 지역 중학생과 일반 가족이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고, 이혼가족, 편부모가족, 입양가족, 문제가족 및 임상가족 등을 포함시켰다면 역기능적 가족유형이 나타났을 것이다.

둘째, 중학생의 지각에만 초점을 두었으므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지각하는 가족체계 유형을 알 수 없고 자기보고식 척도뿐만 아니라 가족체계 유형과 분리개별화 과정을 평가했다. 그러나 관찰 척도를 통한 평가도 병행하면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중학생기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가장 대표적인 가족체계 유형을 알아보고 우리 나라 중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분리개별화 과정과 그 영역에 대해 조사하였고 가족체계와 분리개별화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가족체계의 중요성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제한점을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체계유형 척도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체계와는 차이가 있는 외국에서 개발되어 적용한 것을 번안하였기에 우리 가족문화에 맞는 척도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분리개별화에 대한 연구가 별로 많지 않은 관계로 분리개별화 척도의 타당화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연구 대상의 범위를 넓혀 청소년기 전반에 걸친 분리개별화의 발달적 경로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고, 분리개별화를 안정적으로 달성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의 관련성을 규명해 보는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생을 위해 가족체계 유형에 따라 생활 지도적인 차원에서 교육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1) 김인경(1993).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된 변인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 민중기(1994). 청소년기 가족문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3) 박효원(1993). 자녀가 지각한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4) 배은경(1986). 가족치료의 체계론적 접근에 관한 비교연구: Bowen 이론, M.R.I 이론, Minuchin 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5) 배제현(1993). 청소년기의 분리-개체화와 자아정체감, 학교 및 가정생활에 대한 적응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송성자(1987). 가족관계와 가족치료. 서울: 홍익재
- 7) 신영규(1994). 가족체계 유형과 대학생의 자아분화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8) 이연숙(1991). 가족체계 및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적응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9) 임용우(1984). 가족체계 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장근영(1992). 분리-개별화 과정 및 역할취득 수준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장근영과 윤진(1992). 분리개별화과정 및 역할취

- 득수준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간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발달 4(1), 157-176.
- 12) 전귀연(199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13) 전귀연(1996).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체계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3호.
- 14) Beaver, W. R., & Voeller, M. N. (1983). Family model's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with the Bwaver's system model. *Family process*, 22, 85-98.
- 15) Beavers, W. R., Lewis, J. M., Gosselt, J. T & Phillips, V. A.(1976) *No Single Thread: psychological health in family systems*. New York: Brunner/Mazel.
- 16) Beavers, W. R.(1977). *Psychotherapy and growth:family systems perspective*. New York:Brunner/Mazel
- 17) Beaver, W. R. & Voller, M. N.(1983). Family models:comparing & con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with the Beavers systems model. *Family Process*, 22, 85-98
- 18) Beavers, W. R., Hampson, R. B & Hulgus, Y. F.(1985). Commentary:the Beavers systems approach to family assessment. *Family process*, 24, 398-405
- 19) Beavers, W. R., Hampson, R. B. & Hulgus, Y. F.(1990). *Beavers Systems Model manual*. Texas:Southwest family insitute.
- 20) Bowen, M.(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Jansen Aroson.
- 21) Bos, P. (1962). *On adolescence*. N. Y.: The Free Press.
- 22) B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rk: International Uni0versities Press.
- 23) Bruch, H. (1985). Four decades of eating disorders. In D. M. Garner & P. E. Garfinkel(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for an orexia nervosa and bulimia*(pp. 7-18). New York: Guilford
- 24) Esman, A. H.(1980). Adolescent Psychopathology and the rapprochement phenomenon. *Adolescent Psychiatry*, 8, 320-331.
- 25) Friedlander, M. L., & Siegel, S. M.(1990). Separation-Individuation Difficulties and Cognitive-Behavioral Indicators of Eating Disorders Among College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1), 74-78.
- 26) Hanks, C. O.(1989). The Beavers, Olson, and McMaster Family Assessment tools:A cross theory, cross level comparison Texas Women's University.
- 27)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e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2), 170-178.
- 28) Josselson, R. L.(1988). The embedded self: I and thou revisited. In D. K. Lapsley & F. C. Power (Eds.), *Self, ego, and identity integrative approaches*(pp.91-108). New York: Springer.
- 29) Lapsley, D. K., Rice, K. (1988). The "new look" at the imaginary audience and personal fable: Toward a general model of adolescent ego development. In D. K.
- 30) Levin, J. B., Green, C. J., & Millon, T. (1968). The separation-individuation test of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0(1), 123-137
- 31) Mahler, M. S. (1968). *On human symbiosis and the vicissitudes of individuation. Volume 1: Infantile psych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32) Mahler, M. S., Pine, F., &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human infant*. New York: Basic Books.
- 33) McClanahan, G., & Holmbeck G. N. (1992). Separation - individuation, family function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college students: A construct validity study of the separation-individuation test of adolescence. *Jouranal of*

- Personality Assessment*, 59(3), 468-485
- 34) Noam, g. (1988). The theory of biography and transformation: The clinical developmental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the self. In D. K. Lapsley & F. C. Power (Eds.), *Self, ego, and identity: Integrative approaches*(pp. 3-29). New York: Springer.
- 35) Sullivan, K., & Sullivan, A. (1980). Adolescent-parent sepa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6 (2), 93-99.
- 36) Wade, N. L. (1987). Suicide as a resolution of separation-individuation among adolescent girls. *Adolescence*, 22, 166-167.